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응을 매개로* -

배 경 희

(한국필벽재단)

서 연 속

(서일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어사용능력과 거주기간을 사회적응 매개변수로 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총 247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분석방법은 빈도 및 기술분석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응은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활동은 사회적응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근로활동지원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주제어: 여성결혼이민자, 근로유무, 사회적응, 정신건강

1. 문제제기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9천 5백만여 명이 아시아와 그 밖의 나라로부터 이주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이주자의 출신지역과 국적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UNDP, 2009). 우리나라 역시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1990년에 약 5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 6월 1,208,54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20만 명을 돌파하였다(법무부, 2010).

* 이 논문은 한국필벽재단 필벽다문화연구소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임.

국제결혼의 증가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전체 혼인 중 10.8%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여성이 87.3%, 남성이 12.7%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9).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주로 한국남자와의 결혼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설동훈 외, 2005).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차별,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언어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장명선 외, 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들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음식적응의 어려움, 시부모 및 남편과의 갈등, 자녀문제, 그리고 가족 원과의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이금연, 2003; 윤희숙, 2004; 이해경, 2005; 보건복지부, 2005; 한건수, 2006; 김이선 외, 2007)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인 경제적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로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 가족의 해체는 물론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주변화 되어 향후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증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국내·외 가족들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갈등양산 및 자긍심 저하, 무기력증과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건강문제는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문화가정 전체의 정신건강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에(임혁, 2010) 각별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이 가족관계 갈등, 문화적 응스트레스, 가정폭력 및 학대 등에 맞추어져 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경제활동 참여, 노동시장 진입 및 노동활동 지원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양경은, 2011).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근로의 의미는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벗어나 가족의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여 성취감과 자긍심을 가진 능동적 시민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뿐 아니라 원가족이나 친밀했던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이나 지지체계 단절 후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우울과 소외감,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 등을 극복하게 해 주는 원동력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학력과 본국에서의 근로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한국에서의 근로활동은 사회적응력 향상 및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어사용능력은 노동시장 진입 및 구직활동 관련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근로활동의 원인변수가 될 수 있으나 반대로 한국어 사용능력의 뒷받침 없는 근로활동은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직업성취도 및 작업능률저하를 초래하여 지속적인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근로활동이 한국어 사용능력 증진의 원인이 되기에(왕한석, 2006) 근로유무와 한국어 사용능력, 그리고 정신건강과의 영향력 검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사회적 적응 뿐 아니라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만족, 이혼 등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근로유무가 사회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및 이들 변수들 간의 직·간접효과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및 경제적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근로활동을 통한 사회적응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여성결혼이민자와 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2009년 현재 36.9%로(양인숙 외, 2010) 우리나라 전체 여성 취업률 72.9%(통계청, 201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특성에 있어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 단순노무직에 해당되는 서비스 종사직 32.5%, 기타 단순노무직 17.0%, 전문직 및 관련종사자가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2006년도와 2009년도에 실시된 전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는 2006년에 52.9%, 2009년에 60.1%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9년 조사(김승권 외, 2010)에서는 이들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21.5%, 100~200만원이 38.6%로 전체의 60.1%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도시가구소득 3,442천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직업이 개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와 종사상의 지위와 종류에 따라 분석될 수 있다(이승미, 2002). 직업종사경험은 신체적 영역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지은 등, 2007; 윤지은·전혜정, 2009). 또한 Mardkies 등(1987)은 건강상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직업종사 여부라고 하였으며, Fuller 등(1993)은 여성의 직업종사여부는 이들의 건강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하였다.

여성의 직업종사 여부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에서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두 입장이 존재한다.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여 동료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원을 통한 정서적 만족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등이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이 이들의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능후, 2010).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의 긍정적 의미는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는 가정의 가구소득에 도움이 되며, 둘째,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 셋째, 경제주체로서 사회와의 접촉이 증가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이들의 근로유무를 결정하는 취업은 이민자에게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

내 실질적 구성원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직업이 없는 이민자는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민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Martin, 1999)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통합을 위해 이들에게 근로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 할 것이다.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입장은 직업으로 인해 위해(occupational hazards)에 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직장을 가진 여성은 가정과 일에 대한 이중부담과 역할갈등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측면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정책이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잠식한다는 인식으로 확대될 수 있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적응은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의존적 과정으로 개인의 정서, 감정과 환경 및 주변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상태라 할 수 있다(윤인지, 2000; 신지혜, 2008). 이러한 적응은 크게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으로 구분되는데 심리적 적응은 심리적 안녕, 정신적 건강과 관련되며, 사회적 적응은 환경 및 새로운 사람들과 적절하게 관계를 맺는 능력과 관련된다(최운선, 2007; Ward & Kennedy, 1993). 린(Lin)은 이주자들의 적응을 물질적 적응, 공식적 사회구조에의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분한다. 물질적 적응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존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말하고, 공식적 사회구조에의 적응이란 새로운 정착지의 공식적 사회조직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새로운 정착지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미묘한 문화적 기준, 새로운 가치방향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란, 2007).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응은 사회·심리적·물질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입지에서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나 사건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조건과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정에서 언어사용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양선화, 2004; 설동훈 외, 2006). 언어는 한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적응 또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언어적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가정과 이웃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불행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화·신봉관·조지현, 200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5; 권복순 외, 2006에서 재인용). 언어능력이 사회적응의 주요변인이라는 연구는 한국계 호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오성희 외 2007)에서도 제시되어 이민 적응단계 요인으로 거주기간 및 언어사용수준, 현실의 기대부응도 등을 적응요인으로 꼽고 있다. 거주기간과 적응에 관한 연구는 이민자 연구를 포괄적, 체계적으로 개관한 Berry 등(1987)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Berry 등은 새로운 문화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로 정의하며, 이민적응 단계 및 문화적응

동안의 매개요인들로 거주기간, 문화적응 전략, 대처, 편견이나 차별과 같은 사회의 태도 등을 포함하였다. 즉 이민 후의 거주기간에 따라 적응이 달라져, 단기간 동안에는 때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일정 시간 후에 긍정적인 적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이 심리적 고통에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면(Min et al., 2005), 한국인 남자 이민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기 위기상태(1~2년)에 정신건강에 가장 취약하고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적 안녕감도 호전되면서 안정되어 감을 보였다(Hurh & Kim, 1990)는 연구들이 있다.

3)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Berry et al., 2002; Fossion et al., 2004).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서 관찰되는 정신건강 상의 문제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하는 외로움, 낮은 자존감, 죄책감과 슬픔,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Potocky-Tripodi, 2002; 임혁, 2009 재인용).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는 이주의 동기와는 동떨어진 현실적인 어려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정착지 언어구사능력, 거주기간, 경제적 수준, 개인의 적응과 대처행동으로 나타난다(Potocky-Tripodi, 2002; Donnelly, 2002; Fossion et al., 2004; Mui et al., 2006; 이기영 외, 2009; 임혁, 2009에서 재인용; 오성희 외, 2007). 즉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중 언어 유창성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을 감소시키고, 이혼과 별거는 높은 우울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들도 가구소득 월 200만원 미만인 여성들의 우울이 월 200만원 이상인 여성들의 우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의 목적은 이주과정에서 심리사회적, 정신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주를 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또한 이민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가 클수록 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보고되는데, Murphy와 Mahalingam(2006)은 미국 내의 캐리비안 이민자 1세대를 대상으로 기대와 결과의 지각된 일치수준과 이민자들의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측정된 결과 지각된 일치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 우울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오성희 외, 2007 재인용).

정신건강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의 질에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을 가질 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의 향상이 기대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과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

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과정에서 우울이 발병하면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우울이 유발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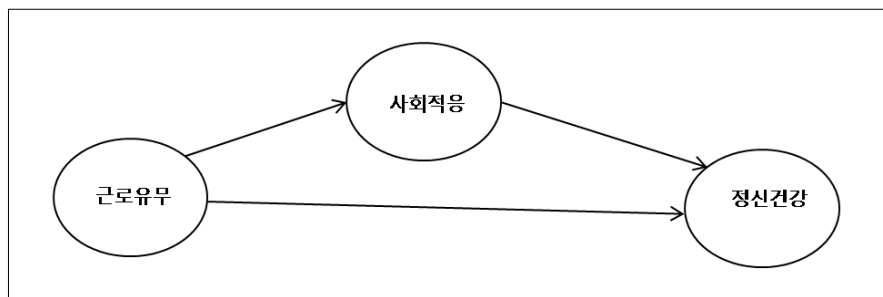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와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자는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247명이다.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3주간 총 382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247부가 회수되어 64.66%의 회수율을 보였다. 임의표집으로 선발된 대상자들에게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어가 가능한 여성들은 자기기재식으로 작성하고, 한국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자들은 기관 전담인력이 1:1로 문항설명을 하며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2) 연구모형

근로유무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조사도구

독립변수인 근로유무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하였고, 비근로는 0, 근로는 1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사항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본국에서의 취업경험 변수를 살펴보았다. 학력과

소득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매개변수인 사회적응과 중속변수인 정신건강은 아래의 도구를 사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1) 정신건강 측정도구

본 연구는 대표적인 정신건강증상인 우울을 조사 분석한 것으로 조사도구는 Radloff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ed Mood Scale(CES-D-10)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10은 지난 일주일간의 본인의 느낌과 행동에 대한 10가지 문항의 질문에 대해 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 미만), ②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③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4일 정도), ④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7일 정도)의 4점 리커트형 척도로, 항목 중 하루 이틀 이상 증세를 경험한 항목의 수를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크론바하 알파값 .802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응

조사대상자의 사회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사용능력과 거주기간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사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Tran 등(2008)의 연구에서 활용된 ELAS(English Language Acculturation Stress Scale) 중에서 기초적 언어능력과 관련한 3개의 설문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척도내용은 한국어 말하기능력, 읽기능력, 쓰기능력에 관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채점방식은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크론바하 알파값 .876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개방형 질문으로 측정하였고, 사회적응 문항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은 .74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연구방법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은 SPSS를 이용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투입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였다. 근로유무와 사회적응, 정신건강과의 직·간접 영향력 검증을 위해서는 Baron & Kenny(1986)의 인과적 단계접근법에 의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분석을 통해 나타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모형적합도 확인은 χ^2 ,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NFI, I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4.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N)	비율(%)
연 령	20세 미만	2	.9
	20세~29세	39	17.7
	30세~39세	84	38.2
	40세~49세	79	35.9
	50세 이상	16	7.3
가 구 총소득	1500만원 미만	48	29.3
	1500만원~1999만원	25	15.2
	2000만원~2499만원(월 2,080천원)	42	25.6
	2500만원~2999만원	15	9.1
	3000만원~3499만원	17	9.1
	3500만원 이상	17	9.1
학 령	초졸	20	9.2
	중졸	26	12.0
	고졸	84	38.7
	전문대졸	39	18.0
	대졸	34	15.7
	대학원 이상	14	6.5
결 혼 상 태	혼인중	193	89.4
	별거	5	2.3
	이혼	9	4.2
	사별 또는 실종	9	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에서 30대가 38.2%, 40대가 35.9%로 30~40대가 74.1%(163명)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20대로 17.7%(39명)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소득은 년 2,000만원~2,499만원(월 2,080천원) 이하가 70.1%를 차지하고 있어 2005년도에 실시된 전국단위의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절대빈곤가구 중 여성결혼이민자가구가 차지한 비율인 52.9%와 2009년에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인 월평균 200만원 미만인 가구비율이 60%였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조사대상자의 74.1%가

30~40대로 학령기 자녀로 인한 교육비지출이 높은 가정임을 감안할 때 이들 가구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크다 하겠다. 학력은 고졸이 38.7%로 가장 높았으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학력수준을 엿볼 수 있다. 결혼상태는 89.4%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유무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결혼이민여성들 중 45.4%는 현재 일을 하고 있고 54.6%는 현재 일하지 않거나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입국 전 근로경험은 78.4%였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전체의 40.2%인 점을 감안할 때 '숙련의 이천장벽'으로 출신국에서의 고학력과 근로경험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참가한 조사대상자의 취업률 45.4%는 여성결혼이민자의 2009년 현재 취업률 36.9% 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여성들의 거주기간은 10년~14년이 36.4%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인 28.2%, 5년~9년이 25.9%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근로관련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거주기간	5년미만	62	28.2
	5년~9년	57	25.9
	10년~14년	80	36.4
	15년~19년	16	7.3
	20년 이상	5	2.3
근로유무	유	98	45.4
	무	118	54.6
입국 전 근로경험	유	171	78.4
	무	47	21.6

2) 변수 수준

조사대상자의 정신건강은 최소값 1.00, 최대값 3.70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은 1.84(표준편차 .47)로 전반적인 정신건강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정신건강에서 우울을 보이고 있는 비중도 상당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3〉 변수 수준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정신건강	220	1.00	3.70	1.84	.47
독립변수	근로유무	216	.00	1.00	.45	.50
매개변수	사회적응	220	1.00	4.50	2.63	.70

3) 상관관계 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응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와 정신건강($r=-.171, p<.05$)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근로활동중일수록 정신건강(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응과 정신건강($r=-.224, p<.01$) 역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사회적응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투입된 변수들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 $r=-.224\sim.339(*p<.05, **p<.01)$ 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신건강	근로유무	사회적응
정신건강	1		
근로유무	-.171*	1	
사회적응	-.224**	.33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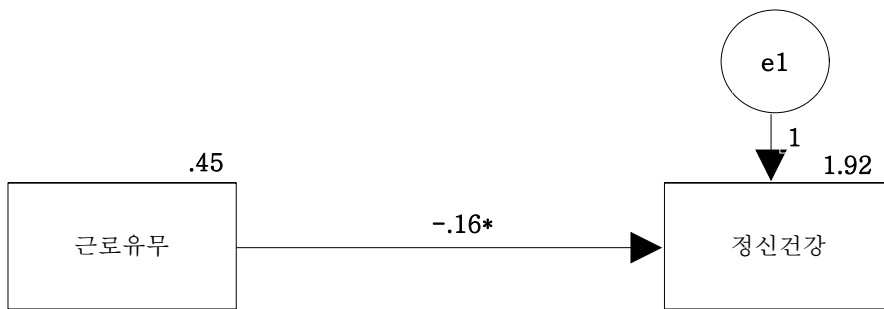
* $p<.05, **p<.01$

4) 근로유무와 정신건강 간의 매개경로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각각의 경로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미해야 하며,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해야 하며, 위 전제조건들을 만족한 상황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직접경로에 매개변수를 투입했을 시, 총효과가 제거되어 0(zero)이 되면 매개변수에 대해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총효과가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지만 그 수치가 매개변수 투입 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정의내릴 수 있다(Baron and Kenny, 1986; 서연숙, 2011; 재인용). 또한 경로검증 시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을 때, 총효과를 0으로 제약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두 모델의 카이제곱값을 비교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정한다.

(1) 근로유무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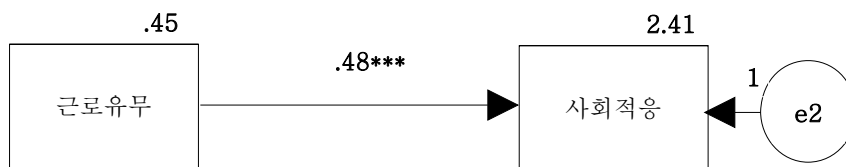
먼저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총효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보이는 바와 같이, β 값 -.16으로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수록 정신건강(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총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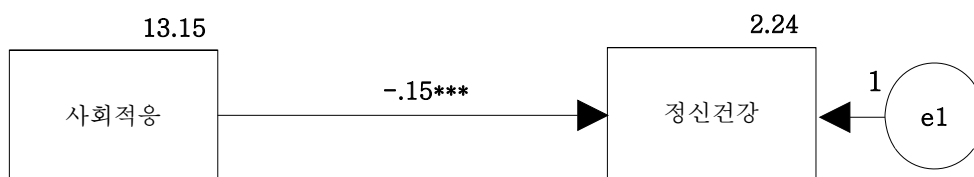
(2) 근로유무와 매개변인, 정신건강 간의 관계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근로유무가 매개변수인 사회적응에 이르는 각 경로를 회귀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유무는 사회적응에 β 값 $.48$ 로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근로 중인 대상자 일수록 사회적응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3] 독립-매개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사회적응이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사회적응은 정신건강에 β 값 $-.150$ 으로 $p < .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적응정도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가 느끼는 정신건강(우울)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그림 4] 매개-종속

(3) 근로유무와 정신건강 간의 완전매개 및 부분매개경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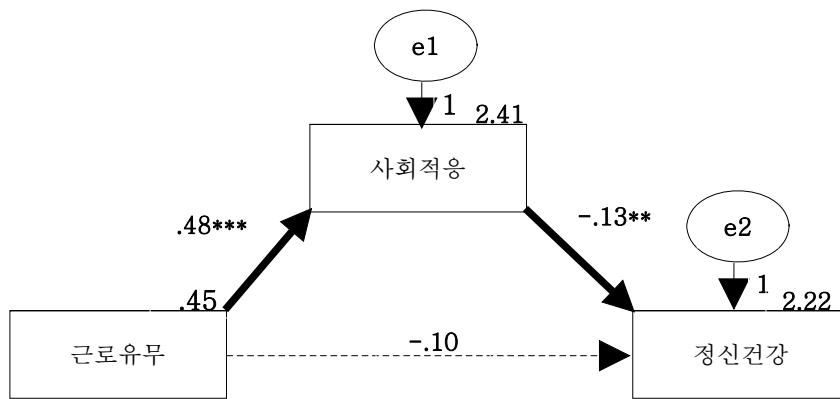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근로유무에서 정신건강에 이르는 직접경로의 총효과에 매개변인을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먼저,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의 적합도⁸⁾를 살펴본 결과 RMSEA의 경우 .161로 .05~.08 사이의 적합한 적합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또 다른 지수들인 CFI, NFI, TLI 등은 모두 .9 이상의 매우 좋은 적합도 수치를 보여 좋은 적합도임이 검증되었다.

<표 5> 모형적합도

적합도	χ^2	df	RMSEA	CFI	NFI	IFI
수치	0.0	0	.161	1.000	1.000	1.000

매개변인 투입 후 직접경로가 갖는 총효과를 매개변인 투입 전 총효과와 비교한 결과, 사회적응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독립-종속 간의 경로에서 총효과 비교 결과 매개변인 투입 전 β 값 -.160에서 매개변인 투입 후 β 값 -.100으로 .060 감소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도 역시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효과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사회적응은 근로유무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8) 모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와 상대적합지수(Relative fit index),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 하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수는 절대적합지수와 상대적합지수이다. 절대적합지수는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이고, 상대적합지수는 기초모델에 대한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χ^2),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MSEA)와 상대적합지수인 표준부합지수(NFI), 기초부합지수(GFI), 비표준부합지수(NNFI=TLI), 비교부합지수(CFI)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χ^2 값은 자유도와 비교하여 그 값이 크면 적합도가 낮은 것이고 χ^2 값이 작으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보며 유의도가 0.05 이상이면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수가 200을 넘는 경우에는 대부분 유의도가 낮게 나타나 최근에는 단지 참고용으로만 이용하는 추세이다. RMSEA는 표본크기가 큰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χ^2 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도 지수로서 0.05 이하이면 우수한 적합도로 0.05~.08 사이 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평가한다. NFI, TLI, CFI는 0.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조선배 1999; 조현철 2003; 김계수 2004; 배병렬 2005; 홍세희 2005; 이상준 2006).



[그림 5] 매개효과검증

<표 6> 회귀계수

경로	비표준화추정치	표준화추정치	임계비율
근로유무 → 사회적응	.479	.342	5.361***
사회적응 → 정신건강	-.126	-.188	-2.690**
근로유무 → 정신건강	-.100	-.106	-1.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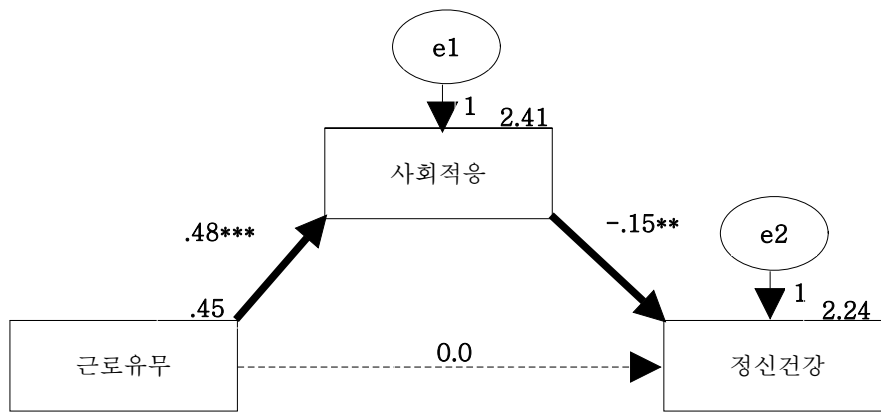
p<.01, *p<.001

(4) 경쟁모형

앞서 지지된 부분매개 모형에 대한 경쟁모형으로서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경쟁모형의 평가는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유사할 경우 카이자승값의 차이검증을 통하여 가능하다. 적합도에 있어 대부분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RMSEA의 경우 .077로 그 수치가 좋은 적합도(.05~.08)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분매개의 χ^2 값은 0.0이고 완전매개의 χ^2 값은 2.284(p>.05)로 완전매개모형의 χ^2 값이 2.284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도 1 증가에 따른 χ^2 값의 차이가 3.84를 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매개모형은 완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경쟁모형의 χ^2 값에 대한 유의도가 p>.05인 것으로 나타나 표본공분산행렬과 연구모형이 다르다는 가설을 기각하여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MSEA를 비롯한 모형적합도와 카이검증값의 차이에 따른 수치를 보았을 때, 부분매개모형 보다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이 본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표 7> 적합도 비교

적합도	χ^2 0.0	df 0	RMSEA .161	CFI 1.000	NFI 1.000	IFI 1.000
부분매개						
완전매개	2.284 (p>.05)	1	.077	.962	.943	.967



[그림 7] 완전매개모형

<표 8> 경쟁모형회귀계수

경로	비표준화추정치	표준화추정치	임계비율
근로유무 → 사회적응	.480	.343	5.373 ***
사회적응 → 정신건강	-.150	-.224	-3.401 ***
근로유무 → 정신건강	.000	.000	-

***p<.001

경로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적응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을 위하여 SOBEL검증⁹⁾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래 <표 9>와 같이 검증값 -2.88로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와 기준치 절대값 1.96 이상을 충족시켜 두 경로에서 나타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9> SOBEL 검증

경로	비표준화추정치	표준오차	검증값
근로유무 → 사회적응	.480	.089	-2.88 (p<.05)
사회적응 → 정신건강	-.150	.044	

9) Sobel test 공식 :
$$\frac{ab}{\sqrt{a^2s_a^2 + b^2s_b^2}}$$

SOBEL검증이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크기가 유의미한지를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를 통해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구미란, 2008). 결과 값이 ±1.96 이상으로 나올 경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정하며, 그 값이 클수록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어사용능력과 거주기간을 사회적응 매개로 하여 이들 변수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살고 있는 총 247명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분석방법은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는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응은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근로활동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높여주고 이러한 적응력은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우울과 소외감,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 등을 극복하게 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에서는 근로활동이 한국어사용능력 증진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응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사용능력에 있어서는 노동시장 진입 및 구직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근로활동의 원인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반면에 한국어 사용능력의 뒷받침 없는 근로활동은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직업성취도 및 작업능력저하를 초래하여 지속적인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 근로활동을 통해 오히려 한국어사용능력이 증진된다는 연구결과(왕한석, 2006)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역시 근로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근로활동중일 때 경제생활이 보다 안정되어 사회적응을 높이고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근로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을 향상시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 발굴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2009년 현재, 36.9%의 취업률을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45.4%가 취업 중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는 자국에서의 근로경험과 고학력, 문화적 다양성과 이중 언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하기에 이들 여성들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개발 및 파트타임, 풀타임 직종 등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고용정책을 통한 이러한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함을 물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참여와 신뢰 등 사회적 지지를 통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증진노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적 지지는 위기에 처한 개인의 기능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낯선 한국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체계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외감, 외로움, 정체성 혼란 등 심리, 사회, 문화적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공식적, 공식적 자원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의 사회참여 독려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교육 및 복지서비스

제공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일반 국민의 다문화와 다양성 존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더 많은 노력과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 2007년 8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정부를 향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인종과 타 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며,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헌법에 명시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를 주도해 온 단일민족 '순혈 신화'나 국가경제력, 피부색, 인종, 성(gender), 계급, 계층, 학연, 지연에 근거하여 각종 차별과 배제를 일삼아 온 우리 국민은 소수집단의 인권과 문화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다문화와 인권,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과정을 정규학과과정에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침은 물론 대국민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경·권태연. 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332-255.
- 강유미·신혜정. 201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4): 1393-1410.
- 고은미.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지원정책방안연구: 전북지역 기관별 여성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 분석". 『국어문학』, 44: 111-138.
- 권명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복순. 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 김경주. 2010.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정책방향". 『한국자치행정학보』, 24(2): 144-166.
- 김남일. 2007.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방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 1-19.
- 김순규·이주재.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김승권·김유정·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 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45(1): 143-189.
- _____. 2007.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43-95.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황정미·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 축(I) 한국사회의

-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2008.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2008 연구보고서 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진희. 2005. “남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행위와 건강수준 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정치학”. 『경제와 사회』. 70: 10-37.
- 노병일·손정환. 20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1): 113-135.
- 박능후·선남이.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이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다문화의식』.
- 박정숙.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5(6): 59-70.
- 법무부. 2010. 『출입국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 서연숙. 2011. “중고령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건강행위와 건강수준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설동훈.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 서울대학교.
- _____.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과천: 보건복지부.
- _____. 윤홍식. 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47-265.
- _____. 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성미혜. 2002. “중년여성의 자아개념과 우울과의 관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1): 171-184.
- 송지은·한경혜. 2007. “직업, 가족 및 일-가족 전이가 취업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미국의 비교”. 『가족과 문화』. 19(2): 61-92.
- 신경숙.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혜.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 자녀와 일반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경은. 2011. “국내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양선화. 2004. “상당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족폭력상담소자료집.
- 양옥경·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사회업』. 26: 79~110.
- 양인숙·민무숙.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10(3).
- 엄한진. 2007. “한국 이민문제의 특성과 이민논의의 모색”.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7-53.
- 오성희·박기환. 2007. “이민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한국계 호주이민자들을 중심

- 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1(4): 55-69.
- 양한석.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적응의 제 양상.”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17
- 유영주 · 이정연. 2005. 『가정학 원론』. 서울: 신광출판사.
- 윤인진. 2000.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123-184.
- 윤지은 · 전혜정. 2009.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상태와 정신건강 : 소득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 노년학』, 29(2): 743-759.
- 윤형숙. 2004. “외국인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 윤황 · 이영호. 2010.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도시-농촌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9(3): 659-684.
- 이광규. 2004. “국제결혼한 여성들의 나아갈 길”. 『무지개평화여성대행진보고자료집』. New York 무지개의 집.
- 이금연. 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 이선혜. 2011. “결혼 이민자와 자녀의 정신건강 실태와 인식”. 한양대학교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상준. 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승미. 2002. “한국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별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 133-160.
- 이태욱.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 연구: 영광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사회업』, 34: 189-221.
- 장명선 · 이옥경. 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장서영. 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정기선 · 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 114.
- 정선애. 2007. “외국인 정책을 통해서 본 국가의 포섭과 배제: 한국에서 여성결혼이주에 대한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67-183.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6): 894-913.
- 최금혜. 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명민 · 이기영 · 최현미 · 김정진. 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141-181.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09. “2009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 보도자료, 법무부.
- 통계청. 2006. “2005년 결혼·이혼 통계결과”. 인구통계.
- _____. 2010. 경제활동 인구조사.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영혜. 2005. "글로벌화와 일본 공교육의 변화: '다문화공생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정기 심포지움 발제문』.
- 통계청. 2009. "인구동태통계연보". <http://kosis.nso.go.kr>
- Akresh. 2007. "U. S. Immigrants' Labor Market Adjustment: Additional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Earnings Growth". *Demography* 44(4): 865-882.
- Backer, M., and D. Benjamin. 1997. "The Role of the Family in Immigrants Labor: Market Activity An Evaluation of Alternative Explan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7(4): 705-727.
- Barker, R. 1991. *The social work dictionary*, 2nd edition, Washington, DC: NASW Press.
- Berry, J. W, U. C. Kim, T. Minde, and D. Mok,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Bhugra, D. 2004. "Migration and mental health".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9: 243-258.
- England, P., Carmen and Gartia-Beaulieu, M. R. 2004. "Women's Employment Among Black, Whites and Three Groups Of latinas: Do More Privileged Women Have Higher Employment?". *Gender and Society* 18(4): 494-509.
- Fouroutan, Y. 2008. "Migration Differentials in Women' Market Employment: An Empirical and Multicultural Analy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2(3): 675-703.
- Friedberg, R. M. 2000. "You Can't Take It with You? Immigrant Assimilation and the Probability of Human Capital". *Journal of Labour Economics* 18(2): 221-251.
- Hum, D., and Simpson, W. 2004. "Economic Integration of Immigration to Canada: A Short Survey".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13(1): 46-61.
- Macklin, Audrey. 1999. "Women as migrants: members in national and global communities. Canadian Woman Studies". *Downsview Fal* 19(3).
- Martin, S. 1999. "Economic Integration of Immigrants". *Discussion Paper, Trans Atlantic Learning Community Migration Workgroup* 1-29.
- Maude Toussaint-Comeau. 2006. "The Occupational Assimilation of Hispanic Immigrants in the U.S: Evidence from Panel Dat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0(3): 508-536.
- Piper, N., and Mina R.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Ross, Catherine E. 2000.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Adult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2): 177-187.
- Truong, Thanh-Dam. 1996. "Gende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mplications for Theory, Policy, Research and Networking".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5(1): 27-47.
- UNDP. 2009. "Asian migrant women face vulnerabilities in the Arab States,9.3". www.undp.org/women
- United Nations. 2002. *International Migration 2002*. New York: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 Ward, C. Bochner, S. and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al shock*. East Sussex: Routledg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Mental Health
in a Sampl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 Mediating Effect of Social Adaptation -**

Bae, Kyung-Hee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Seo, Yeon-Sook
(Seo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adap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mental health in a sampl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Social adaptation was assessed with Korean proficiency and the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Participants comprised of a total of 247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reside in Seoul, Incheon, Gyeonggi-Do.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PASW Statistics 18.0 and the AMOS 18.0 softwa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ocial adaptation was a full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mental health. It is plausible to state that employment status may enhance social adaptation, which in turn improve mental health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implication of our findings is that as employment and social adaptation are important elements of mental health among the marriage immigrate women,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system regarding these antecedent factors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Marriage Immigrant Women, Employment Status, Mental Health, Social Adaptation.

[논문 접수일 : 11. 07. 06, 심사일 : 11. 07. 18, 게재 확정일 : 11. 08. 26]